

시민단체 “편의점 절반이 주휴수당 미지급...체불 아닌 절도”

시민단체, 서울 강북구 105 편의점 실태조사
응답자 105명 중 57.1% 주휴수당 미지급

서울 강북구의 편의점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바상당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22일 오전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105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5명의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편의점 노동자는 전체의 57.1%(60명)였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73명의 편의점 노동자로 대상자를 좁히면, 이 중 47.9%(35명)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퇴직금·유급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32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노동자가 33명(31.4%) ▲31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 22명(21%) ▲41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이 14명(13.3%) ▲50시간 초과는 4명(3.8%)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답한 노동자는 105명 중 15명(14.28%)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답한 노동자도 63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알바상당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임금 체불은 체불이 아니라 절도”라며 “노동자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수근씨는 “현장에서는 일명 쪼개기 근로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며 “저희 매장은 대부분 주 14시간 근로계약이라 생계비가 부족한 동료들은 다른 편의점에서 한 번 더 14시간을 일한다. 결국 편의점에서 주 28시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 헤고될지도 모르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안 씌다고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바로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권오민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 간사는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이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 또는 노년층인 만큼 초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여성·고령·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최이슬기자



훈련 받는 육사 생도들
샌드허스트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2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중생존 훈련을 하고 있다. 오는 4월 미 육군사관학교가 주최하는 샌드허스트 경연대회는 전 세계 예비장교들이 전투체력과 전술적 응급처치, 장애물 극복 등 각종 전투기술을 겨루는 대회이다.

SM·이수만 첫 법정공방...“제휴 아닌 편법” vs “가처분 남용”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이수만 측 “법리적 발행 요건 갖추지 못해 위법”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이 22일 처음 진행됐다.
이 전 총괄 측은 일련의 과정이 전략적 제휴를 내세운 위법임을 내세운 반면, SM 측은 이 전 총괄 측이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이나 현 SM 경영진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 화우와 광장 변호사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이 전 총괄 측은 경영권 다툼을 위한 신주발행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SM 측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맞섰다.

◆이수만 측 “대주주 지위 박탈 시도...편법 취득 위법”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채무자 답변서를 봤지만 실망스럽게도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수단 정당성 관해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직 과거 경영에서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마치 이 사건이 선과 악의 대립인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함이라는 상대 주장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다르다”며 대주주 지위를 흔들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결정”이라며 “3주도 안 되는 기간 군사작전처럼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으로, 진행 경과 자체가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법리적으로도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 명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SM 측 “본질은 이수만 배제 아닌 시스템 개선...경영 판단”

반면 SM엔터 측은 경영권은 대립의 본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SM 측 대리인은 “본질은 이수만의 경영권이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라며 “대주주 이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은가 하는 문제”라고 했

다.
이어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개선하려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대립으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경영성 필요 목적에 따른 정당한 신주발행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SM엔터 측은 신주발행에 대해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총괄 측은 내달 6일 이전 가처분이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나갈 희망하고 있다. 내달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기도 하다.

◆“상법 어긋나는 행위가 본질” vs “엔터 경쟁 심화돼 경쟁력 제고 필요”

한편 양 측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을 통해 추가적인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SM엔터와 카카오의) 단순한 전략적 제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극히 총론적 수준의 구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